

# CAGLIERO 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중** 아하는 책이 무엇이며, 자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없다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만민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선교성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선교지의 계획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순절에 선교성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Václav Clement*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선교 평의원.



## 선교의 협력인 기도

**선** 교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와 희생을 통한 영적인 협력이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복음 선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써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른 방법으로 희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는 희생을 동반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에서 오는 고통들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과 선교 성소를 위해 사랑으로 이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면 단식이나 절제를 통해 절약된 것들을 선교사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수도회의 선교 활동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봉헌할 수 있다.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위해서 목주기도를 합니다. -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해마다 **살레시오 선교의 날**을 주제로 기도문을 만들어 모든 공동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1일** 특별히 **살레시오 선교 지향**을 발표하는데, 이는 선교 협력의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아프리카를 지원할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 국가 - 관구                | 필요한 언어                    | 환경과 요구되는 선교사의 자질                          |
|------------------------|---------------------------|---|
| 에티오피아 - AET<br>감벨라 대리구 | 영어, 현지어                   | 수도회에 위탁된 사목대리구, 적은 회원<br>첫 복음 선포지         |
| 수단 - AFE               | 영어, 아랍어 (북부)<br>부족언어 (남부) | 남부의 첫 복음 선포, 전쟁후상황, 정령신앙지역, 아주 적은 살레시오 회원 |
| 나이지리아 - AFW            | 영어, 현지어                   | 라고스에 새로운 현존 가능, 적은 회원                     |
| 우간다 - AGL              | 영어, 현지어                   | 첫 복음선포, 전쟁 후 상황, 4번째 현존 준비                |
| 앙고라 - ATE              | 포르투갈어, 현지어                | 첫 복음선포, 전쟁 후 상황, 살레시오 주교, 적은회원            |
| 차드 - ATE               | 불어, 현지어                   | 적은 살레시오회원, (다종교 지역; 어떤 지역은 회교), 쉽지 않은 환경  |
| 적도 기니아 - ATE           | 불어, 현지어                   | 적은 살레시오회원, (다종교 지역; 어떤 지역은 회교), 쉽지 않은 환경  |
| 중앙아프리카 - ATE           | 불어, 현지어                   | 적은 살레시오회원, (다종교 지역; 어떤 지역은 회교), 쉽지 않은 환경  |
| 마다가스카르 - MGD           | 불어, 현지어                   | 배마내비키에 첫 복음 선포, 적은회원, 살레시오주교              |

## 무서웠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나누고 싶었다!



### 점

은 지원자 때부터 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듣고, 그들의 영웅적인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 나도 도전해 보고 싶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고 나의 건강도 염려되었다. 하여튼, 나는 수련이 끝난 후에,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열정을 참을 수 없어,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관구장으로부터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멜라네시안들의 문화를 만났는데 나에게서 이상한 것을 지나 기이한 것으로 보였다. 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우리 학교의 학생들 뿐 아니라 본당의 젊은이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습과 가치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로 한 해가 지난 후 나에게 멜라네시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선교사를 위한 문화 체험' 강좌에 참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강의는 나의 첫 선교 경험을 평가하고, 내가 보고, 듣고, 산f아 온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면에서 멜라네시아 문화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멜라네시안 문화의 여러 장점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과 풍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파푸아 뉴기니의 아라이미니에서 3년간의 실습을 마쳤다. 이곳에서 나는 도시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을 배웠다. 정글 한복판에서 단순한 삶과 검소한 음식이 오늘의 나를 가르쳤고 양성했다. 힘든 삶이 이기기 위해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부락민을 위해서도 융통성과 인내심을 함께 배웠다. 또한 내가 직면하여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제는 '기다림'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도시생활에 습관이 되어있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지만 나는 그 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였다. 특별히 나의 선교사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 차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께 청하였다.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나의 신뢰와 확신도 성장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 사목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로서 도왔다. 나의 눈은 마닐라의 도시 생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기적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우리의 살레시오 공동체 생활이 많은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많은 형제들과 함께 사는 행운도 얻었다. 나는 그들의 헌신과 선교를 위한 지칠줄 모르는 사랑과 영혼구원을 위한 그들의 열정이 자랑스롭다.

나의 사제품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는 나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나의 조국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안젤 산체스 부제. 필리핀 출신,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



## 살레시오 선교 지향

### 중동의 이민자들을 위해

중동과 걸프만에 살고 있는 살레시오 회원들이 교육-사목적 봉사와 성소 여정을 통해 그들의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동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동 관구는 일곱 나라에 사목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란; 걸프만 국가에는 쿠웨이트, 예멘이 속합니다. 망명자들을 위한 집 - 특히 이란 출신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온 그리스도교 신자 이민자들 - 많은 살레시오 집들이 생각해야 하는 사목들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곳 이민자들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봉사는 신앙과 성소의 여정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의 봉사입니다.

